

투데이

여수세계박람회 6개월 앞으로

자원봉사 활약이 성공 이끈다

市·조직위 교육 한창...자발적 시민운동도 중요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에서는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한창이다. 2007년 독일 하노버 박람회는 시민 참여의 부족으로 실패한 박람회라 평가받은 반면에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활약이 컸던 2005년 일본 아이치 박람회와 2010년 중국 상하이 박람회는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가 실시한 자원봉사 모집에는 총 4만5000여명이 신청했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 4만53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직무체험 등을 거쳐 최종 1만30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6월 조직위와 별도로 622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본소양과 현장실무 교육을 통해 내년 3월 최종 550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게 된다.

하게 된다.

여수시 박점숙 자원봉사과장은 "현재까지 3500명의 교육을 끝냈으며 나머지 인원도 이달 말까지 기본 교육을 끝내고 12월부터 본격적인 현장교육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우수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여수지역 28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 참가에 대한 이해각서를 체결했다. 회원들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사이버, 현장 교육 등에 참여한 뒤 희망하는 기간과 분야에서 활동한다.

지석호 조직위 자원봉사운영과장은 "여수를 속속들이 잘 아는 여수지역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돼 엑스포기간 자원봉사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직위 소속 자원봉사자는 행사장 운영, 교통안전, 시설관리, 통역, 문화예술행사, 홍보기록, 행정·전산, 편의시설, 후생복지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이달 말까지 면접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수시 소속 자원봉사자는 박람회장 밖인 여수시내 일원에서 교통안내소, 자원봉사안내소, 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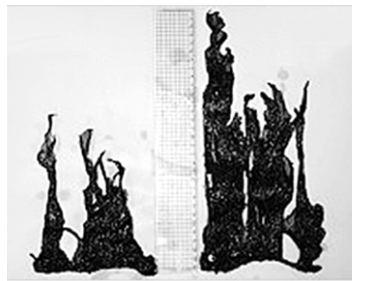
여수시는 자원봉사와 더불어 자발적 시민운동인 '엑스포 4대 시민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시민운동은 매일 첫째·셋째 주요일 오후 2~5시 '청결·질서·친절·봉사'운동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충서 여수시장은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은 여수박람회 기간 국내외 방문객이 편안하게 다녀가고,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남 '슈퍼김' 3년간 로열티 받는다

道, 28일 CJ제일제당과 협약...슈퍼김 2호는 기네스등재 추진



〈일반김〉 〈슈퍼김〉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슈퍼김'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특목한 효과 노릇을 하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과학원은 오는 28일 CJ제일제당과 전남도의 신품종 김인 '녹색의 땅 전남 슈퍼김 1호' 상표권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대기업이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 선급금과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한 뒤 슈퍼김을 가공, 국내외에 판매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CJ는 수천만원의 선급금과 향후

3년간 매년 판매되는 조미김 매출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전남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남에서 80% 이상 생산되는 슈퍼김을 CJ가 사들여 가공·판매하게 돼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김 1호'는 지난 2008년 3월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김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신품종 김. 지난해 양식시험을 거쳐 어업인들

에 공급되고 있다.

업체 길이가 108cm로 일반 김(40cm)보다 클 뿐만 아니라 갯벌에 강하고 흑녹색을 띤다.

올해 종자 배양량이 전년보다 15.6배나 급증했고 양식 면적도 5만헥타(1헥타는 1.8m×40m)에 이를 정도로 김 양식 어업인에게 호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또 해양수산과학원과 함께 최근 개발에 성공한 '슈퍼김 1호'에 비해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른 초우량 대형 김(가칭 슈퍼김 2호)의 세계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초우량 대형 김은 '슈퍼김 1호'에서 업체를 분리한 뒤 여기에서 받아낸 종자로 양식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것으로, 업체 길이가 최대 254cm로 일반 김(40cm)에 견줘 6배 이상 클 뿐 아니라 '슈퍼김 1호'보다도 2배 이상 크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량 품질의 김을 공급, 지역 어업인들이 안정적 이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kg 1만9500원 10년래 최고치

이제는 '다이아 갈치'



지난해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금갈치'로 불렸던 갈치가 가격이 올리는 데 올라 '다이아 갈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갈치(중품 기준) 도매가는 1kg에 1만9500원으로 작년 가격인 1만5980원보다 22%, 평년 가격인 1만593원보다 68%나 급등했다. 갈치 도매가가 kg당 1만9000원을 넘어선 것은 10년래 최고

치다. 병동갈치(중품)도 1kg에 1만2900원으로 평년의 8467원에 비해 52.3%나 가격이 올랐다.

이처럼 갈치 도매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일선 할인점에서 팔리는 갈치 가격도 병동갈치대(300g 내외)가 6480원으로 작년의 3980원보다 62%나 뛰었다.

갈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주산자인 제주 인근 수역의 해수온도 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지난해보

다 20% 가량 하락했고, 일부 재래 시장에서 유통되던 중국, 일본산 수입갈치가 부족한 것도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갈치의 수입이 끊긴 데다 절대적인 어획량 부족으로 인해 중국산 갈치의 수입 물량마저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갈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요 할인점 바

이들이 갈치를 구하기 위해 산지와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고등어처럼 갈치도 해외로 구하러 나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갈치가 '다이아 갈치'가 되면서 대체상품으로 참조기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마트에서는 최근 2주간 참조기 매출이 94.9%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해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10일 여수 디오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엑스포 SNS 서포터즈 리포터'들이 심포지엄 내용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으로 생중계하며 자발적인 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제공)

광주시 사회적기업 내년 100개로 확대

광주시는 현재 72개인 사회적기업을 오는 2012년에는 100개까지 확대,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단계 → 예비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의 3단계로 육성 체계를 갖추고,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발굴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회적기업가 창업 아카데미 운

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 프로보노(pro bono-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 지식 또는 서비스)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자립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교육계, 경제계 등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장 형성과 판로 개척 등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진숙 위원 크레인농성 해제

한진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기결

한진중공업 노사가 9일 잠정 합의한 정리해고안이 10일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무투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와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은 11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영도조선소 내 35m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도 오후 3시20분께 농성을 풀었다. <사진> 지난 11월6일 크레인에 올라간 지 309일 만이다. /연남뉴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이 소경발포 후 회사 문밖을 나설 때 이미 발부던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연남뉴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재영·최현복

(담당)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재영(57)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과 최현복(54) 대구 흥사단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송기섭(5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을 승진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고충처리부위원장을 맡을 박 내정자는 담당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 25회로 관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담당할 최 내정자는 건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반부패 전격네트워크' 집행위원장과 '맑고 푸른 대구21 추진협의회' 회장 등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솔로몬신용정보 직원모집. 솔로몬신용정보는 채권추심 /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최고의 시스템과 차별화된 핵심기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Total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모집부문 및 인원: 영업분야 신입 및 경력직 00명 (상시모집). 근무지역: 광주, 순천. 급여조건: 기본급 + 성과급. 접수방법 (e-Mail 접수): E-Mail : pds7778@nate.com.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62-606-9001. 미수금! 지금 바로 솔로몬에 맡기세요. 채권추심: 대여금, 물품대금, 구상권 등 상거래채권. 집행권원 있는 민사채권. 신용조사: 연체,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금융거래현황. 부동산, 차량 등 재산현황. 회사신용/재무상태 등 거래처 점검. 상담문의: 062-606-9001 (광주), 061-722-1782 (순천). Sm 솔로몬신용정보 http://www.solomoncredit.com/ 솔로몬 금융그룹(솔로몬저축은행, 솔로몬투자증권, 솔로몬AMC, 솔로몬캐피탈)

햇살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상거래 채권, 매매 채권, 금전소비대차 채권, 임차권 채권, 임금 채권, 기사, 구상권, 기타. 대상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갺돈 등,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자 대여료, 보증금, 급여(정규, 일용),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문체준) 010-5311-0086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프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齒 ~ 치료 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중-9092호.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 (병의.신병).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환청이 들리시는 분. 불면증 / 학습증진.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선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범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복서비스 · 개인회생전문관리 철저. 대출대상: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대출금리: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대출기간: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다대출: 연체 (등기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해도 살거래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대상: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금액: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금리: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기간: 1년~10년 (복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SI세-80%+α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